

노동정책연구  
2026. 제26권 제1호 pp.127~135  
한국노동연구원

서평

**무급 노동의 숨겨진 비용 :  
누가 그 부담을 지는가**  
『The Politics of Unpaid Labour  
(무급 노동의 정치학)』  
(Pulignano, V. and Domecka, M., 2025, OUP)

이정희\*

## I. 들어가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의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 프로젝트 기반의 창의 산업 노동, 무급 인턴십, 프리랜서 경쟁 플랫폼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하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 과정에서 수행되는 여러 활동이 노동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보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상당한 양의 무급 노동(unpaid labour)을 요구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급 노동은 가정 내 돌봄 노동과 같은 비시장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 수행되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노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무급 인턴십,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무료 프로젝트 수행, 플랫폼 노동에서의 대기시간, 경력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무보수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경험 축적', '자기 개발', '열정'과 같은 언어로 정당화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 경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 요구조건으로 작동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hlee@kli.re.kr)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바로 Valeria Pulignano와 Markieta Domecka의 공저 『The Politics of Unpaid Labour』이다. KU 루뱅 대학교(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의 노동사회학자 Pulignano 연구팀이 주도한 5년간의 유럽연구위원회(ERC) 지원 프로젝트 ‘ResPecTMe’의 결실인 이 책은, 무급 노동을 단순한 시간 낭비나 개인의 헌신으로 보는 기존 시각을 해체하고, 그것이 불안정 노동 내 계급 기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임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규명한다. 이 책의 부제인 “무급 노동 연구가 불안정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는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정책적 함의를 지닌 실천적 물음이기도 하다.

## II. 연구 설계와 경험적 서사

### 1. 구성과 논지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제1~3장)는 무급 노동의 정치학을 이론화하는 작업이다. 제2부(제4~6장)는 창작 무용, 요양 돌봄,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라는 세 직종의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한다. 제3부(제7장 및 결론)는 역량 접근법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한다.

이 책에서는 무급 노동을 노동시장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무급 노동은 주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이나 재생산 노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은 무급 노동의 분석 범위를 노동시장 내부로 확장한다. 저자들은 무급 노동을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활동이지만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노동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활동이 노동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상적 노동자 규범(ideal worker norm)’과 연결한다. 이 규범은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전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직과 창의 산업에서 이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며, 노동

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몰입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급 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투자’로 이해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무급 노동을 통해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증명하려 하며, 이러한 활동은 경력 형성 과정에서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작동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무급 노동을 불안정 노동 연구와 연결한 점이다. 기존의 불안정 노동 연구는 주로 고용 안정성의 약화, 비정규 노동의 확산, 낮은 임금 수준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무급 노동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경쟁이 심화할수록 노동자들은 일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급 노동을 수행하게 되고, 무급 노동은 노동시장 접근을 위한 ‘선별 장치’로 작동한다.

이 책은 무급 노동이 개인의 선택이나 문화적 규범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보다 넓은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들은 무급 노동을 계급 자원과 시간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한다.

무급 노동을 수행하려면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무급 노동을 수행하면서 경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급 노동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논의는 ‘시간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된다. 무급 노동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 노동과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자는 무급 노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무급 노동은 시간과 자원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불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의 개념과 연결한다.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반면, 회복 탄력성은 이러한 위험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구 자원, 교육 제도, 사회보장 체계 등 다양한 제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급 노동의 확산은 단순히 노동시장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 2. 경험적 분석

이 책의 경험적 기반은 129건의 전기적(biographical) 내러티브 인터뷰와 38건의 음성 업무 일지(audio work diary)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8개 유럽 국가에서 2020~2022년에 걸쳐 수집되었다.

첫째,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는 무급 노동이 어떻게 예술적 소명의 언어로 동기화되는지 보여준다. 무용수들은 무대에 올라갈 기회를 갖기 위해 예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완벽함을 위한 연습, 체력과 몸매 유지를 위한 투자, 오디션과 홍보 행사 참여를 통해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보상받기를 희망한다. 무용수들은 ‘예술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상적 규범을 내면화하며 무급 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 불안정 노동으로 귀결되는지는 가족의 재정적 지원, 문화자본, 사회적 연결망 등 계급적 자원과 국가의 예술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무급 노동을 하더라도 자원에 따라 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이분법적 관계가 확인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훈련비·오디션비를 자비로 충당할 수 없는 무용수들은 이 직종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둘째, 영국과 독일의 요양원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는 돌봄 분야가 왜 무급 노동이 예외 없이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공간인지를 보여준다. ‘이상적 돌봄사’ 규범(진정한 돌봄 노동자는 돌봄 대상자를 위해 초과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기대)은 스톱워치로 정량화된 작업 일정 안에서 감정 노동을 포함한 물리적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무급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돌봄 분야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며 저소득층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는 사실은, 무급 노동이 젠더와 계급의 이중 불평등과 맞닿아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영국과 독일의 비교 분석은 국가 복지 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의 차이가 개인의 불안정 경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도적 맥락에서 보여준다.

셋째, 5개국의 번역가, 카피라이터, IT 전문가 등 온라인 플랫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자들은 플랫폼의 구조적 차이에 주목한다.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의 작업에 입찰하는 경쟁 입찰 플랫폼(토너먼트 플랫폼)과, 클라이언트가 플랫폼의 매칭 엔진을 통해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기반 플랫폼(비토너

먼트 플랫폼)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다른 조건을 부여한다. 토너먼트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과업을 두고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는 ‘아래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구조가 형성되는 반면, 비토너먼트 플랫폼에서는 평판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평판 기반 매칭(reputation-based matching)’이 이루어져 경쟁 방식이 가격 경쟁에서 선별 경쟁으로 전환된다. 이 책은 특히 업워크(Upwork)와 같은 경쟁 입찰 플랫폼에서 국가적 경쟁이 어떻게 수수료의 하향 압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실상 ‘소득 도둑질(income theft)’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점 시스템과 알고리즘적 통제에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에도 무급 추가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구조적 강제로 기능한다. 이 분석은 플랫폼 자본주의 착취 메커니즘을 무급 노동 개념을 통해 새롭게 해명하는 데 기여한다.

### Ⅲ. 이론적 기여와 함의

이러한 경험적 사례들은 단순한 직종별 노동 경험의 서술을 넘어 이 책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토대를 제공한다. 노동을 유급과 무급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구분하는 기존의 분석 틀만으로는 오늘날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이론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저자들은 노동을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분석 틀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대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불평등을 이론화한다. 이 책에 따르면 무급 노동은 노동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예외적 활동이 아니라 노동시장 경쟁을 조직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창의 산업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축과 프로젝트 참여가 무급 노동의 형태로 요구되고, 플랫폼 노동에서는 평판과 평가를 축적하기 위한 무급 시간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돌봄 노동에서는 이상적인 돌봄노동자 규범이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도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무급(감정) 노동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을 단순한 유급-무급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보다 다양한 보상 구조와 경쟁 메커니즘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저자들은 무급 노동을 둘러싼 ‘낙인(stigma)’과 규범의 작동 방식을 재해석한다. 저자들은 무급 노동이 노동시장 경쟁에서 특정한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창의 산업이나 플랫폼 노동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무급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성과 헌신의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급 노동을 감내할 수 없는 노동자는 경쟁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인다. 다시 말해 무급 노동은 단순히 노동자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경쟁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은 무급 노동을 둘러싼 낙인을 단순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저자들은 불안정 노동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복 탄력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정책 담론에서는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적응 능력 문제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무급 노동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정 기간 소득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가족의 지원,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계급 자원과 제도적 자원의 분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능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자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확장하여 ‘임금 도둑질(wage theft)’과 ‘소득 도둑질(income theft)’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한다. 임금 도둑질은 고용관계(ER)에서 이미 수행된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초과 노동 수당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반면 소득 도둑질은 서비스제공관계(SPR)에서 초국적 경쟁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나 클라이언트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한 무급 작업을 포함하여 노동자가 노동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무급 노동이 노동자의 소득 기회를 제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무급 노동이 단순히 임금이 없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적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급-무급 이분법의 재검토, 낙인과 규범의 재해석, 회복 탄력성 개념의 구조적 재구성, 그리고 임금 도둑질과 소득 도둑질의 구분은 현대 노동시장에서 무급 노

동과 불안정 노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첫째, 저자들은 무급 노동이 노동시장 경쟁과 선발을 조직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만, 이러한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업 측의 전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서사 곳곳에서 사용자나 서비스 구매자는 노동자들이 무급 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자로 등장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유급과 무급의 경계를 흐리는 ‘회색 지대’를 확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무용이나 프리랜서 분야에서 나타나는 토너먼트식 경쟁 구조는 노동 공급 과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쟁을 활용하거나 제도화하는 기업의 조직 전략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경험과 행위에 대한 분석은 풍부하게 제시되는 반면, 기업 측의 역할은 다소 ‘블랙박스’로 남는 측면이 있다.

둘째, 저자들이 제시하는 낙인(stigma) 개념은 무급 노동을 둘러싼 규범적 질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일부 맥락에서는 낙인보다는 노동시장 내 선택지의 부족 또는 생존 압박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논의에 포함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소매업, 외식업, 청소와 같은 저임금·저숙련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 순응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대안(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부족 때문에 불안정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무급 노동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산업과 직종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자들은 교차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실제 논의는 주로 젠더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 인종, 이주 배경, 장애 등 다른 사회적 차원이 노동시장 경쟁과 무급 노동 경험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셋째, 저자들은 무급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자원으로서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재생산을 모두 언급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일정 기간 소득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 지원이나 사회적 재생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분명히 제시되지만, 이러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혹은 국가 정책과 복지 제도가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토너

먼트식 경쟁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규범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전할 가능성, 즉 노동조합이나 집단적 행위를 통한 제도적 대응의 문제 역시 충분히 탐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무급 노동의 경험적 양상과 문화적·규범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과 정치적 대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 IV. 맺음말

『The Politics of Unpaid Labour』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무급 노동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이 책은 무급 노동을 노동시장 경쟁과 불평등 구조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노동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특히 무급 노동과 불안정 노동을 연결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무급 노동의 정치경제를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학문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무급 노동을 계급 자원과 시간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한 점 역시 노동시장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노동시장 변화와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무급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책의 논의는 한국의 노동 현실과 특별한 공명을 이룬다. 한국은 OECD 내 장시간 노동 국가 중 하나로, 법정 시간 외의 무급 초과 근무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노동 영역에서도 무급 노동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크홀리즘’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기업 문화는 저자들이 말하는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 노동,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인구의 급증은 한국에서도 ‘소득 도둑질’이 발생할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1인 크리에이터, IT 프리랜서 등이 플랫폼 알고리즘과 클라이언트의 권력 앞에 무급 노동을 강

요망는 현실은, 이 책이 분석한 유럽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무급 노동이 현대 노동시장에서 점점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하여 무급 노동을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재개념화 한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가족 지원을 통한 무급 노동의 계급화’는 한국의 맥락에서 더욱 첨예한 함의를 가진다. 부동산 자산과 부모 경제력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현실—‘영끌’과 ‘부모 찬스’라는 어휘가 일상화된 사회—은 무급 노동의 계급 재생산 메커니즘이 한국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술인, 돌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무급 노동의 실태 조사와 이에 기반한 한국형 이론화 작업이 요청된다.

한국형 정책적 대응에도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의 결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정책 방안이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첫째, 평등주의적 가족 정책이다.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임신·육아 노동자들에 대해 충분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확대 정책이다. 병가 수당, 의료서비스, 실업 수당 등의 적용을 확대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취업과 실업이 초단기적으로 반복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 노동자 권리 강화 정책이다. 자신의 노동조건 및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차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넷째, 단체교섭권 강화 정책이다. 무급 노동을 규율하는 데 다른 어떤 제도보다 단체교섭 구조를 집중화하는 것(업종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이 적합하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프리랜서 무용수의 최저임금을 정규직 무용수의 150% 수준으로 정한 네덜란드 사례나 돌봄 노동자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은 독일과 북유럽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